

휴켄스, 김순형 대표이사 선임



휴켄스가 4월23일 박승영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김순형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김순형 대표이사는 1949년생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휴켄스가 남해화학으로부터 기업분할하기 전인 1976년 남해화학에 입사해 30년 이상을 남해화학과 휴켄스에 근무해온 전문경영인이다.

또 김순형 대표는 남해화학 공장장, 휴켄스 공장장, 영업 및 기획총괄 전무 등을 역임하면서 화학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형 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휴켄스가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주주, 임직원, 고객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화학저널 2008/04/23>